

예수의 구마 이야기

—국경선의 다른 쪽, 원수와 이방인의 고을에서(「마르」 5: 1~20)

서인석

1.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

I. 들어가는 말

오늘날의 사람들은 과학 정신에 젖어 있으므로 구마(驅魔) 혹은 부마(付魔) 따위의 사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들은 귀신 들림 같은 것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거나 적어도 그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신병동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어떤 의사들은 부마의 사실에 대한 불평을 마냥 늘어놓는다. 심지어 그들은 귀신 들림의 현상을 너무 믿고 있다는 인상조차 풍기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균형의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이런 민속 신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II. 민속 신앙과 믿음

필자는 아주 중대한 한 단어를 언급했다. 즉 '믿음 Foi' 과 '민속 신앙 Croyances' 을 서로 혼동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악마들의 존재와 부마 현

상에 대한 사람들의 설명은 모두가 민속 신앙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이런 민속 신앙은 그리스도교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다. 민속 신앙의 이야기들을 지어내기 위해서 성서나 복음서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이 신앙들은 성서의 주변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보다는 오히려 유별나게도 로마인들의 세계에서 더 자세히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세계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악마나 천사들의 존재에 관해 신약 성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정보들에 관한 모든 관점을 고려해볼 때, 영들의 세계에 관한 지식 혹은 사람들이 안다고 주장하는 정보의 면에서 신약 성서는 아주 축소 지향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오히려 신약 성서는 이들의 세계에 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편이다. 독자는 영들의 세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신약 성서의 이런 자세를 언제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III. 민속 신앙과 믿음의 차이성

그렇다면 민속 신앙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먼저 이 두 실재성을 분리시키는 일이 그리 쉽지가 않다. 믿음은 민속 신앙 안에서 자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속 신앙은 비가시적인 세계에 관해 말하고 상상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이런 신앙은 가시적인 지평을 초월할 때, 이 지평에 대한 표상들을 동원한다. 만일 사람들이 이런 지평에 관해 말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는 우리의 상상력에 말을 걸어오는 인간적인 단어들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은 믿음의 영역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IV.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대관절 무엇인가?

믿음은 민속 신앙보다는 훨씬 더 기본적인 것이다. 믿음이란 민속 신앙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인간의 한 개방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개방성은 인간을 초월하고 있고, 가시적인 세계의 지평을 뛰어넘고

있는 한 실재성에게 넓게 열려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실재성을 민속 신앙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한다. 하지만 믿음은 민속 신앙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가고 있다. 신앙이라는 단어의 엄격한 의미로 보아, 믿음은 오로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크 라캉 Jacques Lacan의 욕망 이론'에 따라 쉽게 부르고 있는 바, 믿음은 '타자 l'autre'에 대한 자아 개방성이다.

누구든지 타자를 만나자마자, 그는 이미 인간적 수준에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열 것을 초대받는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첫 경향은 타자에게서 자기와 유사한 자를 보려고 한다. 무엇으로 이 타자는 나와 비슷한가? 나는 그를 내 편으로 끌어들인다. 내가 외국인을 사귄다는 말은 그와 나 사이에 모종의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은 결국 그와 나, 곧 우리가 서로 이해의 공통 분모에 도달했다는 말이다. 그렇다, 그는 나와 같은 인간이다. 결국 그 외국인은 비록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인간성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타자 안에서 자기와 유사한 자를 찾는다. 자기와 비슷한 자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와 닮은 사람이다. 혹은 그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닮은 존재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타자 안에서 유사한 자를 찾는 것 대신으로, 그 안에서 자기와는 아주 다른 타자성을 찾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만일 그 유사한 자가 나와는 아주 다른 타자로서 나와 전혀 비슷하지 않은 인간이란 것을 알아차리면, 사람들은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와 비슷한 자들이란 것을 알아보기에 앞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아주 다른 타자란 사실을 두고 내심 당혹스러워한다. 어느 정도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미국 병사를 만나면, 말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타자와 대면하게 되면, 그는 아주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는 두려움·불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방어적인 폐쇄성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혹은 그는 정반대의 반응으로 신뢰의 자세를 취할 수

도 있다. “보라, 이 사람에게는 내가 모험을 할 여지가 있는 모종의 좋은 인상이 풍기고 있고, 새로운 그 무엇이 이 사람과 함께 나에게 다가온다. 이 사람에게는 지평들을 향한 개방성이 보이는구나. 지금까지 나는 나의 작은 세상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려는 경향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이 작은 세상을 뒤흔들어놓는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바로 이것이 유사성을 지닌 사람 안에서 타자와의 만남이다. 우리는 이제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서로 맺는 관계 안에는 믿음이 깔려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체험이 반드시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는 어려운 혹은 쉬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관계가 쉽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반면 관계가 어렵다고 여겨지면, 그런 관계는 오히려 튼튼하다. 이는 바로 타자와 유사한 자의 문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느님에게 불일이 있다면 차원은 달라진다. 신 또는 하느님은 아주 편리한 단어이다. 이 낱말은 우리와 유사한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어떤 분, ‘절대 타자 tout autre’의 현존 앞으로 우리를 서게 한다. 인간인 우리와는 아무것도 같은 것이 없는 분, 그러니 그 분은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구약 성서 안에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이분께 대한 경외심 같은 것이 자주 언급된다. 이런 절대 타자 앞에서 사람들은 낯선 느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분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에다 자기의 마음을 의지할 것인지 전혀 모른다. 사람들은 하느님 안에서 인간과 비슷한 그 무엇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성서 안에는 놀라운 사상의 한 움직임이 있다. 이 움직임은 성서 안에서 바로 (절대) 타자가 자신과 유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창세」 1: 26~27). 하느님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신에게 고유한 표지를 자기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남기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정된 단언은 그 다음의 문장

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성서 안에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대접받는다. 유일하게 하느님의 전형적인 모상, 즉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이미지는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하느님을 꼭 닮은 석상도 아니요 그림도 아니다. 바로 살아 있는 인간이 하느님의 이미지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같은 자와 다른 타자의 관계성이 변화된다. 나는 하느님 안에서 나와 비슷한 동질성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인간적인 품성을 하느님에게 귀속시킬 때마다, 나는 속고 있다. 인간적으로 가장 훌륭한 품성들을 그분께 돌리더라도 그렇다는 말이다. 내가 하느님은 '좋은 분'이시다' 라는 말을 할 때, 나는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만, 동시에 신적인 선성(善性)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관해 말하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 사이의 선성에 관해서 조금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것이다. 나는 이 선성을 하느님에게도 적합한 것으로 상상된 한 표현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이다.

하느님에 관해 말하는 법을 잘 배울 필요가 있다. 사실 하느님에 관해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가 발성하는 때 문장마다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올려놓는 일이 없이도, 우리의 삶과 담론 안에 하느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진솔하다. 하지만 진솔하다는 그 사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진실이다.

V. 민속 신앙과 민속 신앙에 대한 믿음

민속 신앙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비가시적인 실재에 길들이게 한다. 비가시적인 영의 세계도 아주 다른 타자의 세상이다. 그런데 이런 타자를 두고, 성서는 천사 혹은 악령들의 존재를 시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영의 세계에 관해 말하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들의 실체에 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타자인 것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그들에 관해 많은 호기심을 가진다. 그들에 대한 이야

기나 전설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다음의 사실이다. 예를 들어, 신약 성서가 씌어진 시대에 유대인들의 세계에는 천사의 타락 혹은 이들의 반항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유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전설은 모두가 상상적인 성격을 지닌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신약 성서는 이런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로지 아주 후대에 씌어진 「베드로 후서」(2장 4절)와 「유다서」(6절)만이 사람들이 유대인적 기원을 가진 문서들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바, 그런 전설에 대한 2개의 암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조차도 이 전설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 편지들은 허무맹랑한 전설에 유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한 암시만이 거기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천사와 악마들에 관해 말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말수를 아주 아끼라는 뜻이다.

VI. 복음서

복음서에는 비가시적인 영의 세계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가?

복음서 안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직 인간사(人間事)들을 출발점으로 해서만 천사와 악마들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악마에 관해서 신약 성서는 인간적 난잡성 혹은 착란성을 출발점으로 해서 말하고 있다. 결국 신약 성서의 사람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출발점으로 해서만 악마들에 관해 말할 수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신약 성서에서 악마에 관한 전설이나 이야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말하자면,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 무슨 일을 어떻게 꾸미고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마귀들이 밖으로 내쫓기면, 그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이천 마리쫓 되는 돼지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 달려 모두 빠져 죽었다”(「마르」 5: 13)에서, 악마들은 그 다음에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독자는 그들의 사정이 어찌

되었는지 알았으면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호기심은 충족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 작용에서 벗어나는 바를 고안해내려는 의지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영의 실체에 관해 말할 때 현명하게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볼 것이다. 그러므로 민속 신앙과 믿음을 서로 구별하는 것이 독서의 규칙이 될 것이다.

믿음의 행위란 다음의 사실을 지적한다. 사람들이 기호들을 신호로 나에게 알릴 때, 그들이 부마 이야기 같은 것을 나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구마 이야기를 얘기할 때, 나는 즉시 내게 서술된 이야기에 관해 상상할 수 있는 바를 통해서, 어떤 관점으로 타자, 즉 총체적으로 다른 그 타자에 대한 한 개방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나는 이 타자에 대해서 오로지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탄은 누구이고 그의 생김새는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인간적 흔적들 밖에서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도 문제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그 사탄을 알아보는가(?)에 있다. 복음서와 성서가 말하고 있는 바대로 그의 활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호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은 인간적 처신들에 주의력을 집중하도록 한다는 점을 보게 될 것이다. 난폭하고도 문란한 이런 처신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자는 이런 관점을 이해했는가? 아니라면, 필자는 인간적 이해력을 초월하는 이 색다른 타자들의 세계에다 질서를 잡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 이제 복음의 한 가지 이야기를 면밀하게 읽어보자.

2. 국경선의 다른 쪽, 원수와 이방인의 고을에서(「마르」 5: 1~20)

I. 텍스트

(1)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 지방으로 갔다. (2)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3)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 누구든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4) 이미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도 묶인 적이 있지만,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했다. (5) 그는 밤낮없이 늘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짓쪼곤 했다. (6)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 절하면서 (7) 큰 소리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에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제발 괴롭히지 마십시오.” (8) 예수께서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9) 그리고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가 “군단입니다. 수가 많으니까요” 하고는 (10) 그 고장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거듭 빌었다. (11) 거기 산기슭에는 놓아 기르는 돼지떼가 있었는데, (12) 더러운 영들이 간청했다.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13)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한테서 나와 돼지들 속에 들어가니, 이천 마리 쯤 되는 돼지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 달려 모두 빠져 죽었다.

(14) 돼지 치던 이들이 달아나 고을과 마을 농가에 이 일을 알리자 사람들이 웬일인지 알아보러 왔다. (15) 그들이 예수께 와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 곧 군단을 지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절집을 했다. (16)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두 이야기해주자 (17)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고장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당신 곁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19)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족들한테 가서, 주님이 행하신 일, 곧 하느님이 그대에게 자비를 베푸신 일을 모두 알리시오.” (20) 그는 물러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죄다 데카폴리스 지방에 알리기 시작했고, 모두들 놀랐다.

II. 독서의 총체적인 가설

(1) 그들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모두 함께 낯선 땅, 곧 비-유대인들의 지방에 도착한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텍스트는 더 이상 제자들에 관해 말하지 않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도래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1~13절).

이중적인 존재, 혼동 속에서 혼합된 자, 살아 있는 자들과 도시로부터 추방된 자, 사람들은 그를 휘어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으나 허사였다 (결과도 없는 강제된 사회에로의 회귀 시도). 휘어잡을 수 없을 만큼 야수적인 육체의 완력, 자기의 몸을 거스르는 자해 행위의 폭력, 한 인간의 품위라고는 전무한 상태, 타자들, 자기 자신,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자, 그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不淨)한 자(시체들과 돼지들 처럼)이다.

만남은 애매모호하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는 그에게 두려운 적수로 여겨진다. 그분은 간청의 대상이지만,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는 명령을 했을 때, 영은 그분으로부터 자신을 옹호하려는 수를 쓰고 있다. 영은 ‘나’라고 말하지만,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군단Legio(로마 점령군)이라 불린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정체성이 부재한다(텍스트는 처음에 ‘그’라고 하고 나중에는 ‘그들’이라 부른다). 더러운 영은 고장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타협을 벌인다. 더러운 영은 언제나 기생충처럼 돼지들 속으로 들어갈 것을 각오한다. 이런 일을 예수가 원했던 것은 아니다. 그분은 영에게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두지만, 예견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제

그는 자기 파괴의 힘을 돼지들에게 행사한다. 호수속으로의 추락은 카오스와 죽음의 자리에서의 회귀를 표지한다(이런 회귀는 「마르」 4: 37~38에서도 나타난다).

(2) 해방된 사람, 지방 사람들과 예수(14~20절). 돼지 치던 이들은 고을과 마을 농가에 이 일을 알린다. 사람들은 발생한 일을 보려고 모여든다(이상하고 설명이 안 되는 사건). 그리고 그 사람의 달라진 모습을 본다. 귀신 붙었던 사람(현재형 동사: 그는 아직도 귀신이 붙은 자인 것처럼)의 새로운 상태(단순하게 정상적인 인간: 공격성의 부재, 웃을 입고 멀쩡한 정신). 이런 사건은 그들이 모르고 있었기에 사람들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붙인다. 마치 자기들의 세상, 매일매일의 표지들을 해방하는 그 무엇의 난입 앞에 직면한 것처럼 말이다. 지켜보았던 사람들(돼지 치던 목동들과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물(어떻게이지 무엇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의 경우와 돼지들의 경우를 다시 연결한다. 이는 사물들을 복잡하게 만든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귀신 들렸던 자가 이런 상태로 바뀐 것은 긍정적인가? 그리고 그토록 많은 돼지들의 죽음은 확실히 부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다. 사람들은 대혼란에 빠져 있다. 그들의 두려움은 공포에 가깝다. “예수는 우리의 ‘국경’을 떠날지어다! 해방하는 자를 거슬러 우리끼리 환경과 일상 생활의 표지들 속에서 숨 좀 돌리자!”는 말이다. 그리고 해방된 남자는 그곳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레이터는 그 사람을 귀신이 붙었던 자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부마의 상태에 있지 않은 자(18절의 동사는 과거분사형이다)로 지칭한다. 전(前)부마자는 예수에게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을 간청한다. 그러나 예수는 그에게 가족들에게 가라고 요구한다. 그는 스스로 가족들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하지만, 가족 안에서 자신을 실종시키라는 것은 아니다. 타자들 가운데서 그의 차이성은 “주님이 행하신 일, 곧 하느님이 그대에게 자비를 베푸신 일을 그들에게 모두 알리시오”라는 사명 안에 있다. 그러자 “그는 예수가

그를 위해서 한 일을 선포하기 시작한다.” 강조점은 7절에서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두려운 능력이 아니라, 좋으신 주님의 동정 어린 행동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 그 자비로운 행동이 계시된다. 텍스트는 여기서 이 이야기의 총체에 대한 독서의 열쇠를 제공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놀란다 혹은 감탄한다.” 이는 영접을 가로막고 있던 공포심의 극복이다. 감탄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바람직하고 행복한 것이 될 수도 있는 바 새로움에 대한 첫 개방성이다.

(3) 예수는 그 지방에 한 증인을 남기면서 떠난다. 이 증인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그렇다면 그는 유다의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거룩한 땅과 이교도들의 땅 사이의 대립은 지속되었을 것이다. 반대로 예수는 군단으로부터 그 지방을 해방시켰고, 또 해방된 그 사람을 부정한 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그 말씀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예수와 함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제자들의 장래 상황을 예고한다. 그들은 부활 후 예수가 사라진 뒤에 이교도들의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야기 안에서 제자들에 대한 텍스트의 침묵을 보상한다.

III. 장면 1: 더러운 영들(1~13절)

우선 이 첫 장면에 머물며 텍스트를 잘 관찰해보자. 이 장면에서는 분석할 것이 많다. 여기서도 설화에 관한 유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런 이야기의 진리성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가 아니라 전방으로, 다시 말해 독자의 편에서 확인될 것이다.

문제는 다음의 사실을 아는 것이다. 예수의 여행 도중에 발생했던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하는가? 사람들은 이런 여행 체험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별써 이런 현상을 입증할 수 없는 문제는 선행하는 이야기보다 더 복잡

해진다. 때문에 사람들은 티베리아 호수 주위에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무리지어 호수속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산비탈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입증할 수 없는 현상은 이야기가 이것의 배후에 있는 에피소드와는 적지 않은 거리를 두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 거기에는 이야기를 구사한 민속 전승이 있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 전승을 복원하여 재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르코 복음」의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개입하는 것은 이것이 민간 전승에 대한 신학적인 이본(異本)이기 때문이다. 성서학자 중의 한 분은 이 이야기를 복음적 서부 할극 영화라고 부른다.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독서의 상징적인 행보가 될 것이고, 이 행보를 걸으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그들, 곧 예수의 일행은 호수의 다른 편에서 무리를 구성하여 즉시 게라사인들의 지방에 도착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이야기는 예수와 그분을 만나려고 오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만 관심을 집중한다.

1)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남자

텍스트는 이 사람을 소개한다. 어떤 상태로 이 남자가 살고 있었던가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텍스트가 화폭에 담고 있는 이 사람의 상태는 이렇다. “그는 무덤에 살았는데, 이제 누구든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도 묶인 적이 있지만,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했다.”

더러운 영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는 「마르」 1장(23~28절 참조)에서 더러운 영의 정체를 알아보았다. 그는 뒤죽박죽 섞여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그 사람과 그 안에 거처하고 있는 더러운 영 사이의 구별은 불가능하다.

혼합된 존재, 게다가 그는 죽은 자들의 거처인 묘지에서 산다. 그는 살아 있는 자들의 구역에서 쫓겨난 존재다. 조금 뒤에 그는 산속에 살고 있다고 텍스트에 언급된다. 「마르코」 복음에서 산이란 돌산이다. 주거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곳이다. 그는 산 자들과 주거지가 없는 곳의 거주자다.

2) 인간적 존재 밖의 사람. 이 사람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야수에 더 가깝다

그 다음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고 말한다.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부수어버린다. 아무도 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

이 같은 이미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맹수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이리하여 그는 산 자들의 권역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을 통해서라도 산 자들과 통합될 수 없는 존재다. 만일 사람들이 그를 묶는다면, 그는 위험한 존재란 뜻이다. 동시에 이는 도시 속에 통합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우리가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자들을 특수한 정신병동에 수용한다. 사람들은 높은 벽 안에 가두어둔다는 조건으로 그들을 감금한다. 우리는 이런 세부 사항으로 묘사된 이야기의 사람을 두고 곧장 다음의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 안에 통합될 수 없고, 죽은 자들의 영역에 방치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시 밖에, 인간적 공간 밖에 살아야 하는 그에게는 인간다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밤낮으로 묘지와 산에 거처하며 고래 같은 고함을 지른다. 고함은 말씀의 반대이다. 고함은 동물에 더 가까운 미치광이의 외침이다.

고함을 지를 뿐 아니라 돌로 제 몸을 짓찧는다. 이리하여 그가 쇠사슬을 부수어버리는 것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돌로 가슴을 찢으면서 자신을 거슬러 폭력을 휘두

른다.

이런 스펙터클은 반-자유인의 것이다. 살아 있는 인간은 사회 안에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꽃피우고자 한다.

3) 예수와의 대화

그 사람은 예수를 멀리서 보고는 달려와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한다. 「마르」 1장에서 우리에게 얘기된 더러운 영에 비하면 놀라운 자세다. 거기서 더러운 영은 말로 예수를 공격한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1: 24).

그런데 여기 이 장면에서는 그가 빨리 달려와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 정상적으로 그는 예수를 피해 도망쳐야 할 텐데 말이다.

땅에 몸을 엎드린다. 그는 간청의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텍스트는 그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라고 지적한다. 그는 예수께 무엇인가를 요청한다. 그는 예수와 어떤 유의 관계성 안에서 요청하는가?

그런데 1장의 표현과 같은 말을 그는 하고 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표현 양식은 우리들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함께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말하며 그는 간청한다. “당신은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따라서 「마르」 1장의 더러운 영의 입장과 같다.

당신과 저 사이에는 의사 소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당신이 온다면 그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고통을 더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마르」 1장의 장면과는 좀 다르지만 그 톤은 같다.

타자는 오로지 나에게 악행만을 가하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자폐증 환자이기에 벽 속에 나를 가둔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여기서 ‘제발’ 하고

간청한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에 비해 자신의 약세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4) 무슨 이유로 간청하는가?

텍스트는 예수가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는 말 씀을 하고 있던 중이라고 설명한다. 예수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람과 더러운 영 사이에 분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었다. 한번 더 새롭게 예수는 분리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혼합된 존재.’ 어떻게 그를 다룰 것인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아와 자아가 아닌 것 사이에 차이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 안에서 이 혼합 상태 밖으로 자기 자신을 동일화하는 일이다.

더러운 영인 타자는 벌써 이 말씀의 효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분께 간청하고, 또 제발 자기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5) 더러운 영의 이름

그 다음에 오늘의 우리에게서 좀 신비스러운 에피소드가 잇따라 온다.

무슨 이유로 그에게 이름을 묻는가?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는 “군단입니다. 수가 많으니까요”라고 대답한다.

만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역사의 관점에서 공부한다면, 이 설화는 아주 오래된 구마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다. 유대인들과 이교도인들이 실친 하던 구마 행위에서 상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를 제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적대자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를 열세의 위치로 강동시킨다는 말이다.

우리의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병행하는 설화를 찾아나선다. 물론 그들은 언제나 텍스트 외부의 자료에 호소할 수 있다. 이런 일은

허위가 아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일이 우리로 하여금 텍스트 자체에 몰여 보는 것과 이름의 요청을 이해하는 것을 면제시켜준다면 아주 유감스럽다.

그렇다면 「마르코 복음」 안에 생산되어 있는 바 이름을 알리라는 이 요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제기될 수 있다. 예수가 상대방에게 말을 걸며 이름을 알리라는 요구는 그에게 '너' 라고(이름이 무엇이나?) 말쑥하는 예수와 '우리' 라고 대답한 타자 사이에 대조성을 생산한다. 사실 그는 “군단입니다. 수가 많으니까요”라고 대답한다.

독자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르코」 1장의 연구에서 이 점을 이미 밝혔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1: 24). 그는 우리=혼동, 뒤죽박죽이 된 그 우리에게서 진실이 아닌 나로 옮겨간다. 때문에 나는 지식의 나다. 나는 너(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필요 없다! 나는 너에게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나에게 원수로 분류된 존재다.

6) 부마 곧 악마가 불었다는 것은 인격성 파괴를 그 원칙으로 삼는다

그런데 우리의 장면에서 부마 과정은 반대다. 군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명의 나가 있다. 그러나 이름은 바로 그 수가 많은 우리다. 그러므로 부마자에게는 개인적이고도 인격을 대표하는 이름이 없다는 말이다. 나는 고유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는 우리라는 깊은 호수 안에 익사해버린 '나'다.

사람들은 귀신의 비-인격성에 대한 강조를 여기서도 또 만난다. 이런 강조는 반복적임에도 불구하고, 성서학자들이 왜 이 점을 포착하지 못하는지 의문스럽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들이 부마자들을 상대로 연구한 문헌을 아직은 보지 못했다. 아마도 그들의 게으름 탓일 게다. 그런데 프랑스의

루댕 Loudun에 부마자들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 그들이 구성한 문헌에는 순례자들에 의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다. 사건은 17세기의 것이다. 자료의 대부분은 부마자들에게 구마자들이 심문한 질의 응답이다.

역사가들은 이런 것을 많이 연구했고 미셸 드 사르트 Michel de Sarto는 예의 질의 응답서에 나타나는 언어를 분석했다. 이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부마자에게 규칙적으로 '네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아무 이름이나 상관없이 그것도 무한대로 수많은 이름을 낸다는 것이다. 모든 가능한 이름들이 부마자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동일한 사람이 이름을 수도 없이 바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마들은 위격체들 personnes 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탄은 비-위격체(澁澁) non-personne"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얼굴도 가면도 없다. 그러나 비록 비-위격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아니다. 차라리 그는 비-위격체, 다시 말해 '혼동 그 자체'란 점이다. 일종의 다중(多衆) 속에 있는 혼란스런 혼동 속에는 인간성을 위해서 가능한 위격성 personnalit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탄은 고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위격성을 파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여기 이 장면에서, 사탄은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빼앗기도록 작용한다. 사람들은 그가 귀신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하는데, 이는 부마했다는 말이다. 이런 상태 안에서 확실한 것은 그는 자기 자신, 자기의 말쑥, 자기의 '나,' 곧 자아를 빼앗긴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것은 그가 단수의 존재인가 혹은 복수의 존재인가라는 점이다. 독자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어떻게 단수에서 복수로 옮겨가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그는 달려오며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자 예수가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말쑥 하켰다. 예수는 그 사람과 더러운 영 사이에 차이성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함으로써 두 존재 사이의 구별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의 텍스트는 “군단입니다. 수가 많으니까요”라고 영이 대답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단수) 자기들(복수)을 그 고장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단수와 복수 사이에 불분명함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 안에서 차이성이 어떠한지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 다음의 텍스트는 “더러운 영들(복수)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가 돼지들의 몸 안으로 육화하는 일로 끝장을 본다”고 말한다. 보통 돼지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개·소·말 들은 고유한 이름을 갖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돼지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말을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돼지들은 고유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러운 영들에게 가장 적합한 동물이다. 돼지는 이 영들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처다. 그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은 사람이 아니라 돼지때다. 우리는 이런 점을 영들의 요구 안에서 보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농담도 섞여 있다. 지방색 운운하며, 나라 간의 농담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이야기는 갈릴리 해안의 사람들이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라사인들을 두고 만들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웃는다. “그래 맞아, 돼지들은 게라사인들에게 잘 어울리지.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사육이 금지되어 있단 말이야!”(지금의 이스라엘에서는 돼지 사육이 여전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지방색으로 말하자면, 한반도의 사람들은 아주 빼어나다. 그들은 다른 지방 사람들을 비웃기 위해 온갖 이야기를 지어내는 데 선수다. 이런 현상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다.

이리하여 “호수 저쪽에 있는 돼지들은 그 고장에 잘 어울린다! 그리고 거기에 더러운 영들이 있다면, 그들은 고향을 얻은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갈 것을 간청한다.” 독자는 돼지때가 산속에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산속에 사는 그 사람과 공간적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부마자는 도시와는 먼 곳에 자리한다. 그럼에도 그는 산 자들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돼지

치는 목동들은 도시여로의 왕복 이동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야기는 공간적으로 잘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독자는 이 문장 안에서 뉘앙스를 잘 느껴볼 것이다. 그분이 영들을 돼지들에게 파견한 것이 아니다.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파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그러자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터진다.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한테서 나와 돼지들 속에 들어가니, 이천 마리쯤 되는 돼지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 달려 모두 빠져 죽었다.”

7)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는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 안에서 하던 일을 돼지들 속에서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정체는 자기 파괴의 원칙이기에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더러운 영들의 폭력은 자기를 거슬러 휘두른다. 돼지들은 그 사람이 야수로 변모했듯이 야만스러워진다.

더러운 영이 한 사람을 탈인간화시켰듯이, 그는 또 마찬가지로 돼지들을 탈돈화시킨다. 이는 존재의 가능성이 없는 바 뒤범벅 안에 용해되는 혼동의 원칙이다. 호수는 죽음과 혼동의 공간이다. 거기서 더러운 영은 기절해버린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부터 떠나간 더러운 영에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궁금해한다. 그들에 관한 현장 르포 같은 것 말이다. 그는 어디로 가는가?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는 자기 두목에게 지상에서 인간을 괴롭힌 사명을 어떻게 보고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인간들 밖에 있는 악마들에 관해서 결코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없다. 성서의 사람들은 영들이 인간이라는 기계 장치에 혼란을 야기했을 때만 오로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사회적 관계의 혼란, 군사 독재, 비-인간화, 인종 청소, 전쟁, 인간 육체(나치의 희생자인 유대인 대학살)의 파괴 등 이런 일이 발생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더러운 영이 작용한

다.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바로 사회와 인류, 창조 속의 무질서를 일으키고 혼동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 다음의 장면을 보자.

IV. 장면 2: 돼지 치는 목동들(14~17절)

“돼지 치는 이들이 달아나 고을과 마을 농가에 이 일을 알리자 사람들이 웬일인지 알아보러 왔다.”

그들은 호수에 빠져 죽은 돼지들의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들은 이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들판과 고을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호수속에 익사한 돼지들의 이야기와 함께 무슨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는지이다. 그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온 것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계신 쪽으로 온다. 그들은 무엇을 목격하는가? 목동들이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해서 그들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돼지들은 이미 호수속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그들이 목격하는 것은 부마된 자다. 부마의 사실을 묘사하는 동사가 그리스어의 현재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이상하다. 동사의 이런 시제는 조금 뒤에 내레이터가 말할 것인 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니다. 그 장면에 도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은 현재 시제의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들이 보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장면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인으로 차분하게 앉아 있으니, 이제 그는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아니란 점을 목격한 것이다.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가 사회화되어 있다는 말이다. 사회의 보통 사람들의 복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그가 습관적으로 나체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그의 정신도 사회로 합류하는 데 있어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점

이다. 그러나 게라사인들은 그에게 신뢰감을 줄 것인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런 상태로 변화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한 군단의 귀신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말이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질겁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독자는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을 다시 만난다. 호수의 풍량을 가라앉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거리감을 인정했다. 제자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곧 볼 것이지만, 이 경우에 두려움은 타자의 인정이 아니라 공포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자 보충 정보를 통해 새로운 여론이 형성된다. 16절의 지켜본 이들이 말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목동이기에 두 상황을 모두 목격했다. 그들은 돼지들에게 발생한 일도 보았고, 또 정상인으로 되돌아온 귀신 들린 사람의 변모된 모습도 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상인이 된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와 돼지들의 이야기와의 연계성을 역설한다.

이런 여론의 조성은 사물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돼지들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관시켜야 하는지를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한다. 독자들은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 사건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사람의 이야기는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그 사람의 사건은 부정적일 수 있다. 그가 세상을 등지고 산에 살고 있었을 때, 고을 사람들은 편안히 살았다. 이제 그가 정상인이 되었으니,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일은 두려운 결정이다.

그리고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그들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기색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그가 과연 치유되었을까? 재발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소외된 자로 남아 있다.

반면, 돼지들의 상실은 확실하게 부정적이다. 목동들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돼지들은 목장주의 재산이다. 이천 마리가 죽었다. 대단히 큰 경제적 손실이다. 이런 일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든다.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고장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17절).

이상이 거리를 취하도록 만드는 두려움이 어떻게 타자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경우가 있다. “이분이 누구이신가?” 그들은 예수의 정체를 배우기 위해서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게라사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의 경우에, 두려움은 공포로 변한다. 예수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당신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잘라 거절하던 더러운 영의 반응을 자기네 입장으로 삼고 있다(「마르」 1: 24 참고).

목동의 여론 조성이 정론이 된 셈이다. 예수라는 타자의 배제는 고장 사람들 전체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장에 잠시 있었던 타자를 인정은 했지만,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그가 떠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V. 장면 3: 이야기의 결론(18~20절)

여기에는 (절대) 타자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문제되고 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 두 입장에서 좌우로 흔들리며 움직인다. 나는 타자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내레이터는 이제 그가 더 이상 부마자가 아니란 것을 안다)이 당신 곁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에 의해 뽑혔던 제자들의 입장이란 점을 독자는 기억할 것이다(「마르」 3: 14~15 참조).

함께 있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며 그분의 학원에서 학생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예수는 게라사의 그 부마자에게는 함

게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가족들한테 가서, 주님이 행하신 일, 곧 하느님이 그대에게 자비를 베푸신 일을 모두 알리시오.” 자의적으로 번역하면, “너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었던가를 알려라”이다.

따라서 예수는 그를 함께 데리고 가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지시를 내리고 그를 게라사에 둔 채 떠나버린다

1) 첫째 지시

‘가족들한테 가거라!’는 명령. 그는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주도권으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사회로의 복귀를 가족 단위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재통합은 사회의 기본인 가족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고을, 곧 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2) 둘째 지시

“주님이 행하신 일, 곧 하느님이 그대에게 자비를 베푸신 일을 모두 알리시오.” 이런 지시는 ‘너는 그런 자비의 증인이 되라!’는 말이다. 그 사람은 데카폴리스 지방에 주님의 자비를 알리기 시작한다. 그는 단순히 자기 가족뿐 아니라 자기의 도시, 심지어는 그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도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 10개의 도시를 알고 있는데, 이들은 로마인들의 감시하에 지방 자치제를 실시했다.

“그는 물러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죄다 데카폴리스 지방에 알리기 시작했고, 모두들 놀랐다.”

예수, 그분은 드디어 개방된 두려움 쪽으로 사태를 진전시킨다. 사람들이 놀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놀란다는 것은 게라사인들이 부마했던 그 사람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말이다. 그들은 타자인 예수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을 더 이상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3) 이 사람을 위한 상황 평가

이 사람이 새로 맞이하고 있는 처지를 평가해보자. 그가 자기 고향에 남아 있는 것 혹은 예수를 동반하는 것 중에 어느 선택이 그에게 더 좋은가?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는 그 사람이 자기를 추종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문제를 이미 해결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예수를 추종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결정은 그의 입장에서 볼 때, 낯선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것은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 안에서 또다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나라를 떠나 외국 땅으로 간다는 것은, 유대인의 측면에서, 그가 자기 고향보다는 유대인들의 땅이 더 살기 좋은 곳이란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예수는 자기에게는 이국 땅인 게라사 지방에 그 사람을 남아 있게 함으로써 '거룩한 땅'과 '이교도들의 땅' 사이의 차이성을 부인하고 있다.

예수는 그 옛 부마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으로 보인다. "너는 네 고향에서 편안히 살 수 있다. 네 고향 땅은 부정한 곳이 아니다. 특히 이제는 그 몹쓸 로마 군단이 떠나지 아니했는가! 그러므로 이제 너의 고향 땅은 더러운 곳이 아니다. 너는 거기에 머물 수 있다."

4)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지리적으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옛 부마자로 하여금 자기를 이동시켜야 함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도가 있다는 말이다. 예수는 옛 부마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너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의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그리고 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나와 함께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예수와 말씀과 함께 사는 옛 부마자의 삶은 예수와 장차 지상에서 사라질 때,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관계의 구조가 될 것이다.

예수가 부활 후에 사라졌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거룩한 땅에 정착하여 거기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이교도들의 외국 땅으로 갈 것이고, 그들은 예수의 부재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예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옛 부마자와 예수의 제자들의 삶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독자는 이 이야기가 놀라운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가? 한편의 신나는 서부 영화다. 그러나 게리 쿠퍼 주연의 「정오의 결투」에서 그 서부 영화는 신학적 영화란 점이다. 그 이유는 예수의 모든 제자들의 조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고 있는 바, 한편의 통쾌한 서부 활극이기 때문이다!

Essai d'analyse sémiotique d'un texte de l'Evangile: Guérison d'un possédé, Marc 5: 1 ~ 20

Suh, In-Suk

En écho au signe de la tempête apaisée, ce récit (Mc 5, 1~20) montre Jésus aux prises avec les forces innombrables du mal, qui entraînent l'humanité dans les déhaînements de la violence. Ce sont les nouveaux rapports établis entre les hommes dans le Royaume qui rendront la paix au monde.